

01 교회소식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 비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세계 교구화를 창대히 이루는 우리 교회의 새해 비전을 소개한다.

02 생명의 말씀

사역

새해에는 목자의 권능이 더 커져서 손수건의 역사 또한 놀랍게 나타날 것이며, 목자와 하나 된 만큼 사역의 열매도 달라질 것이다.

03 기획특집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유

천지창조 첫째 날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셨다. 그 ‘빛’의 의미와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04 간증

“나의 나 됨은 오직 목자 은혜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공해병을 치료받은 뒤 영의 마음을 이루고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박흥기 장로의 간증.

만민뉴스

제615호 2014년 1월 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할렐루야! 축복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3-2014 송구영신예배가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부터 새해 1월 1일 새벽 4시까지 진행됐다. GCN 방송을 통해 국내외의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1부 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새해 우리 교회 4대 비전 중 하나인 '사역(행 19:12)에 대해 설교했고, 2부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년 기도 제목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 3부에는 새해 교회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2014년 4대 비전 선포

2013-2014 송구영신예배를 앞두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주일 저녁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 사무연회 석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발표했다. 즉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3-14) ▷사역(행 19:12) ▷빛나는 성전(계 21:2) ▷재창조의 역사(창 1:3)이다.

첫 번째, '내가 시행하리라'는 교회 개척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거대한 프로젝트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 왔던 이 제단을

향하신 섭리, 한국 교계를 향한 섭리, 전 세계 만민을 향한 마지막 때의 섭리를 목자의 권능으로 창대하게 이루게 될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사역'은 목자의 권능이 날로 더해져서 손수건에 담긴 권능의 역사도 더욱 커질 것과 국내외의 1만여 자·협력교회와 전 세계 곳곳에서 권능의 손수건 사역이 활발히 펼쳐질 것을 말한다. 그 열매 또한 GCN 방송과 책자, 신문 등과 더불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세계 교구화도 더욱 신속히 이를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빛나는 성전'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복합적인 축복이 임함으로 짓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을 뜻한다.

네 번째,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근본의 소리를 발하여 다시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말한다. 새해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베풀어져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근본의 소리를 발한 것이 완성도 있게 이뤄져 온전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지난 32년 동안 전 세계 만민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며 무수한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보였다. 무엇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 다한 사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급속히 변화시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왔다.

한편, 이 목사는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근본의 소리를 발하며 교회 4대 비전은 물론, 전 성도 개인 기도제목도 응답받아 영광 돌리도록 축복기도해 주었다. 특히 2014년 새해에는 수천 명의 성도가 믿음의 반석에 들어가고, 수백 명의 성도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왕들을 만나 교제하며 복한의 문화가 개방될 수 있도록 살아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12)

신약 시대 권능의 사도인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치료되고 악귀가 나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온갖 불치병과 난치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타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개종하는 등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큰 일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목자의 권능이 더 커져서 손수건의 역사 또한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국내외 1만여 지·협력교회와 세계 곳곳에서 권능의 손수건 사역이 활발해져 세계 교구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지요.

마지막 때 세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만민의 사역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

사역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데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2년간 만민의 사역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역에 대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본 제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렸지요.

또한 역지로 힘들게 사역한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 너무 막막한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하나하나 일들을 이뤄 왔지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날 전 세계에 우뚝 선 만민의 제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 정도까지가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더 큰 계획을 품고 계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원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많은 영의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오직 그분의 방법대로 자원해 순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아니고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품으신 크고 놀라운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만민 제단을 세우셨지요. 32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이 제단으로 불러 주시고 그중에 고르고 골라 연단하셔서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말씀과 권능으로 이루는 세계 교구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제단과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는 섭리는 세계 교구화입니다. 즉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 그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지요.

여기에 필요한 강력한 무기가 '말씀'과 '권능'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때에 온 세상을 비출 성결의 말씀과 증거되는 말씀이 참임을 증명해 줄 놀라운 권능이 필요했지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하신 이 말씀을 이뤄야 했습니다.

오늘날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

어만 가고 있는 이때에 영혼 구원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권세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며, 무한한 영의 세계를 본 듯이 만진 듯이 밝히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지요.

이와 함께 이 말씀이 참이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권능입니다. 그것도 보통 권능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권능의 역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경전동지할 놀라운 권능이 필요하지요.

3. 영적 장수들이 권능의 손수건으로 펼치는 사역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영적인 능력, 곧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지요. 이 능력은 육적으로 권세 있고 지식과 학문을 많이 쌓거나, 돈이 많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닮은 만큼 즉 성결되어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온 만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제단과 성도를 택하셨고 지난 32년간 준비케 하셨지요. 최근 3년여 기간을 통해서는 막바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급속한 영의 흐름을 주도해 오셨습니다.

성결되어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온 영적 장수들이 꼭 필요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근본 뿌리에서부터 뽑아낼 수 있도록 때로는 혹독하리만큼 강하게 몰아치셨지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으로 잘 통과해 반석으로,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영의 열매들이 곳곳에 맺히고 있습니다.

또한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온 주의 종들이 제게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권능의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무릎 꿇게 만들었지요. 죽어가던 사람과 짐승과 식물도 살려냈습니다. 생명

이 없는 기계라도 손수건에 담긴 권능 앞에 순종했지요. 질병과 균으로 인한 웬만한 질병은 일꾼들이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어도 치료받아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손수건에 담긴 권능의 10~20프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인데,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면 손수건에 담긴 권능이 혁혁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4. 목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른 사역의 차이

이 권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손수건에 기도해 담았고 여러분은 손수건에 담긴 권능을 끌어내어 사용하는 것이지요. 손수건을 사용하는 분이 목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손수건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사역이 차이 나지요.

영 이상으로 인정받은 분들은 목자에 대한 신뢰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육에 있는 이상 아무리 입술로는 목자를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고백해도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지요. 사단이 송사하기 때문에 육에 있는 이상은 손수건에 담긴 권능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따릅니다. 목자와 신뢰로 하나 될 때 목자에게 주신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많은 열매로 맺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32년간, 좀 더 실제적으로는 지난 3년여 간 목자와 여러분과의 신뢰관계를 대폭적으로 키워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를 신뢰해 결국 반석을 지나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하셨지요. 이렇게 준비된 여러분이 바로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이 제단에 주신 섭리를 이루기 위한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의 손수건을 들고 해외로 나가는 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도 권능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사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00 PM 주일 저녁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11: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7:00 PM 수요예배 8: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토요일예배 [아동부] 4:00 PM 3:00 PM 다나·열왕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을 알 수 있는데 3절 이하에는 첫째 날 사역이 나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빛이란 과연 어떤 빛일까? 당시는 해가 창조되기 전이므로 햇빛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슨 빛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천지창조 첫째 날 말씀하신 '빛'은 '창조의 근본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말씀, 곧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계셨다(요일 1:5). 이때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근본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빛과 소리를 ‘근본의 빛’, ‘근본의 소리’라고 한다.

근본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근본의 빛과 소리로 계시던 근본의 우주 공간을 크게 넷으로 분리해 ‘영의 공간’과 ‘육의 공간’으로 나누셨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육의 공간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때가 이르매 천지창조를 시작하셨다. 천지창조 첫째 날 지구에 내려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근본의 빛’이 지구를 포함하는 일정한 육의 공간을 돌렸다. 여기서 ‘일정한 육의 공간’이란 천지창조의 역사가 이뤄지는 지구와 태양계, 그리고 은하계까지 가리킨다.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배운 근본의 빛을 ‘창조의 근본의 빛’이라고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천지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창조의 근본의 빛’을 두르신 후 ‘창조의 근본의 소리’를 발하여 순서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육의 공간을 두르신 이유

◆ 영의 공간을 입혀서 영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육의 세계는 육의 시간의 흐름을 탔다. 즉 우리가 지금 느끼는 하루 24시간의 개념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런 육의 공간 가운데서 창조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포함한 일정한 육의 공간을 근본의 빛으로 둘러 영의 공간을 입혀셨다. 영의 시간은 육의 시간의 흐름보다 훨씬 빠르다. 육의 시간으로는 수십, 수백 년 걸릴 일도 근본의 빛으로 둘러진 영의 공간에서는 하루 안에 다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창조의 근본의 빛 안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근본의 빛이 둘러진 공간에서는 영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된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도 하고, 어떤 하나의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자유롭게 변형될 수도 있다. 그런데 육의 공간도 근본의 빛으로 둘러 영의 공간이 입혀지면 이 영의 공간의 법칙대로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 덩어리가 기도받은 후 순간에 사라지고, 복막염 환자가 기도받은 즉시 통증이 사라지고 정상이 되는 경우이다. 의학적으로는 대부분 수술해서 제거해야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받은 사람이 공의에 합당하게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면 영의 공간이 입혀져 역사되는 것이다. 부러진 뼈가 신속하게 붙고, 죽은 신경이 살아나며, 퇴화된 조직이 정상으로 되는 것도 근본의 빛이 그 부분을 두름으로써 영의 공간이 형성돼 그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 육의 공간에 질서와 원칙을 세우기 위함이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공전한다. 또 태양계의 행성들은 물론, 무수한 별도 일정한 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모두 정해진 질서와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 또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로 돌아간다.

이러한 육의 공간에 필요한 모든 원칙이 바로 첫째 날에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근본의 빛을 두르심으로써 앞으로 만드실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와 원칙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욥 38:5).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물에 깃들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능력에는 죽은 생명체를 살리기도 하고, 잘 자라게도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흙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란다. 자연 법칙상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적절한 흙과 수분과 햇빛이 있어야 한다. 이는 바로 흙과 수분과 햇빛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생명이 싹 틀 수 있는 것이다.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해 일정한 육의 공간에 둘러진 근본의 빛은 이 세상이 점차 죄로 물듦에 따라 서서히 열어지다가 노아 홍수 때 대부분 갇히게 된다. 하지만 피조물 안에 깃든 이 빛은 지금도 남아 있어서 모든 생명체를 붙드는 기본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

<p>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2014.1.5-1.11</p> <p>謹賀新年 2014 January</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시행하리라 3차 영혼육 9-13 믿음을 착량하시니 6-10 요한일서 강해 26-30 일곱교회 16-20 창세기 강해 26-30 우리 삶의 등불 6 	<p>GCN TV 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발견 2(이수진 목사) 기쁘시게 하는 자 2(이미경 목사) 영의 세계 7(이희선 목사) 생명수 13(신동초 목사) 언약계 3(정구영 목사) 소원(이재정 교육전도사) 축복(김현진 교육전도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10-11 찬양드려요 11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0-11 항기11 우리하나 10-11 플로리스트 10-11 English 5-6 아름다운 예배 6 찬양과 경배(3) 70-76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스토니아연합성회 1 <p>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GCN 방송</p>
---	--	---	--	--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신종질환 공해병을 당회장님 기도로 치료받고

1991년, 30대 초반에 희귀병인 공해병(뇌척추신경염, 일명 만성피로증후군)이 제게 발병했습니다. 치료하기 위해 수 년 동안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병세는 더욱 악화됐지요. 급기야 1996년부터는 그동안 다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휴직하고 병마와 싸우며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에 쫓힌 만민중앙교회 선교지 '만민뉴스'에 실린 어느 성도님의 말기 암 치료 간증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얼마 후에는 우연히 종로서점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구입해 밤새 눈물을 흘리며 읽었지요. 그 뒤 공해병도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1997년 6월 22일, 가족과 함께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질병은 죄로 인해 오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말씀과 당회장님의 가르침에 순종해 살아가 노력하며 안수기도를 받았지요. 그 결과 공해병이 깨끗이 치료됐고 현재까지 17년 동안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힘썼더니 영의 마음을 이뤄

공해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 저는 일가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열심히 치료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에 70여 명에 달하는 일가친척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 곧 성결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누누이 알려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함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죄성조차도 없는 참 자녀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를 치료해 주시고, 일가친척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성결되기 위해 힘썼지요. 성경에 버리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았고 지키라, 하라 하는 것은 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1년 12월 25일, 저는 마침내 당회장님의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에 힘입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결한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천국이 제 마음 안에 있는 듯 평안과 기쁨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행복했지요.

많은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의 귀감이 돼

제가 연합회장으로 있던 남조장들도, 재정부 부원들도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



박흥기 장로 (1대대 4교구,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공해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열심히 치료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 70여 명에 달하는 일가친척들이 전도되고 성결한 영의 마음을 이루며 충성해가니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지요.”



음에 '성결을 향한 스티디'를 시작했습니다.

남조장들과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8개월 동안 40여 명이 모여 매 주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스티디를 했습니다. 재정부 부원들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과는 2013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8개월 동안 200여 명이 모여 매 주일 저녁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말씀공부 및 기도를 했지요. 이로써 모두 성결을 향한 열정으로 노력한 결과 많은 사람이 믿음의 반석으로 들어왔고, 영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꾼들의 가정을 심방하며 영혼 사랑을 더욱 키워 나갔습니다. 또 레위족(교회 상근직원) 특강, 교구 남장년 구역예배 인도, 각 연합회에 초청돼 말씀을 증거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지요.

2013년 6월 27일에는 예성연합 교단 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선출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 12월 29일 교회 사무연회 시 공로패도 수상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나라와 성결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자 한 것을 보시고 영육 간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직장, 자녀, 건강 등 축복이 넘쳐

이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강건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시력도 2011년에 양쪽 시력이 0.9였는데, 2013년에는 1.2로 좋아지는 축복을 받았지요.

공해병을 치료받아 복직한 후에는 성실히 근무하며 최선을 다하니 감사원 선발 모범 공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2010년부터는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M&A(기업인수합병) 분야에서 아시아 1위는 물론, 많은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올려 고객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담당하는 공정거래사건에서 늘 훌륭하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지요.

또한 가족도 전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 조미형 권사는 4교구 여지역장과 여지역장 연합회 서기로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들 박종석 형제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으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지요. 2013년 8월에 대학교를 졸업한 딸 박선영 자매는 국내유수기업에 2013년도 하반기 신입사원공채로 합격해 더욱더 실력을 갖춘 일꾼이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저를 영육 간에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동평로 168(부암1동) ☎070-8223-491~4, 010-9818-9833
- 서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민성결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성결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성결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성결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성결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성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성결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성결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성결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성결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성결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2)933-7077, 010-8291-7173
- 청주민성결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성결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민성결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성결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성결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성결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성결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성결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성결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성결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성결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 2길 제3동 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성결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성결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성결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성결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성결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필포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